

세상은 지금...

사진으로 보는 뉴스

출처 : 신화넷

중국 국제해운 규모, 세계 3분의 1 육박



7월 13일 찍은 강소성 양주항. 11일 해남도 경해시에서 열린 2025년 중국 항해의 날 포럼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해운 규모는 세계의 약 3분의 1을 차지, 따라서 글로벌 경제무역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말레이시아 동해안철도 터널 전부 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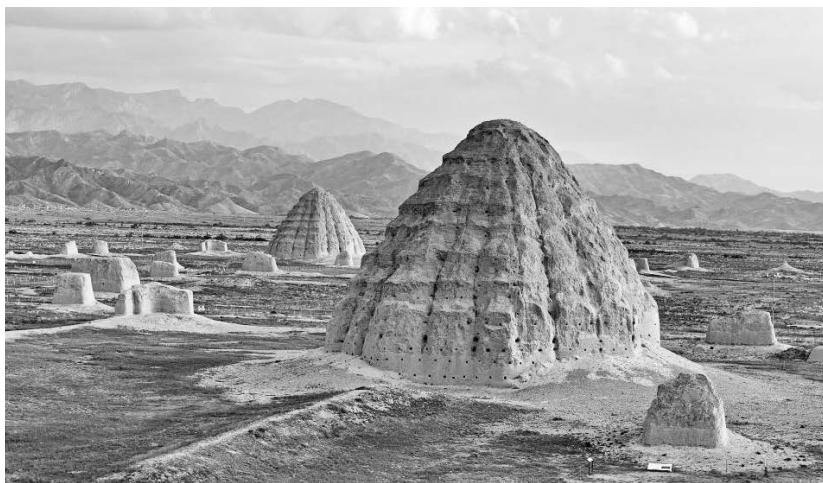
7월 12일 찍은 윈딩터널 입구. 중국교통건설그룹유한회사가 시공한 말레이시아 동해안철도 프로젝트의 윈딩터널이 12일 관통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41개 터널이 모두 관통됐다.

오사카엑스포 중국관 '절강주간' 행사 진행



7월 12일, 일본 오사카엑스포 중국관 '절강주간' 행사에서 사람들이 송대(宋代) 점차(点茶)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중일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 등 약 200명이 이날 개막식에 참석했다.

서하릉, 세계유산명록에 등재



7월 10일 찍은 서하릉 1호릉과 2호릉.

7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 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신청한 '서하릉'(西夏陵)이 세계유산명록에 등재되었다. 서하릉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당항족(党项族)이 중국 서북지역에서 건립한 서하왕조(1038년—1227년)의 릉묘 유적군으로 념하회족자치구 은천시에 위치해있다.

조락제, 한국 국회 부의장 이학영 회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는 7월 10일 북경에서 한국 국회 부의장 이학영을 회견했다. 조락제는 중국측은 한국측과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 아래 리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하며 인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자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 15 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부장회의, 꾸알라룸뿌르서



7월 11일, 제 15 차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외교부장회의가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왕의는 올해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설립 20주년을 이틀 계기로 동아시아는 리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감옥서 '긴 세월' 보낼 듯



7월 9일 저녁,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이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윤석열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임은정은 윤석열이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은, 로씨야 외교부장 라브로프 접견



로씨야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김정은이 라브로프를 접견하는 사진.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김정은이 라브로프를 접견하는 장면. 7월 12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원산에서 로씨야 외교부장 라브로프를 접견했다. 이날 라브로프는 조선 외무상 최섉희와 제 2차 로조 외교부장급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트럼프 : 우크라이나에 '애국자' 미사일 제공



7월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시에서 구조대원들이 로씨야군의 공습을 받은 주민구를 수습하고 있다.

1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나토(北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애국자'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비용은 나토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국서 민족의상축제 개최



7월 8일, 몽골국 제 19 회 민족의상축제가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되었다. 몽골국 21개 성 및 울란바타르시 9개 구의 민족의상 공연팀외에도 해외에서 온 몽골민족의상 애호가와 일부 관광객들이 몽골포를 입고 행사에 참여했다.